

## 『기독교강요』 초판(1536년)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 사상

권선중 (스위스취리히대학박사, 조직신학)

### I. 서론

17세기에 등장한 칼뱅의 정통주의 이후로 칼뱅에 대한 이해는 보다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쪽으로 변해갔다. 기독교가 가지는 배타적 구원의 가장 무시무시한 적용으로서의 이중 예정론이나, 교회 안에 실시되었던 출교와 권징을 비롯하여 정적 세르베투스의 회생을 묵인했던 것은 그에 대한 가장 서늘 퍼런 초상화를 그려내게 한다. 그러나 최근에 칼뱅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칼뱅의 새로운 면모를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교회일치 옹호자로서 칼뱅”은 20세기의 에큐메니컬운동의 흐름에 힘입어 새롭게 연구된 성과였다.<sup>1)</sup> 이러한 연구들은 그가 1539년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게 된 것과 그로 인해 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에 주목한다.<sup>2)</sup>

- 1)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서구신학에서와 같이 한국 신학에서도 “칼뱅의 교회일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장신대 박경수는 그의 책 『교회의 신학자 칼뱅』에서 칼뱅의 교회 일치 사상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그는 특별히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논하였다.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2) 선행된 연구들의 자료로 사용된 주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사들레토의 편지> (1539),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 (1541), <취리히 합의> (1551), 『기독교강요, 4판』 (1550), <교회개혁의 필요

그렇다면,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기 전에 칼뱅은 교회 일치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였을까? 본 논문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된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 이전의 칼뱅의 교회일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1539년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기 전에 칼뱅은 교회일치 사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가? 교회일치에 대한 그의 사상은 오로지 부처의 영향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혹은 그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다른 영향은 존재하지 않았었나?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기독교강요』 초판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기독교강요』 초판은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하기 전에 출판된 것으로 칼뱅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기독교강요』 초판의 출판과 관련하여 칼뱅이 처했던 상황과 이 책이 기록되고 출판된 도시, 바젤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독교강요에 다루어진 순서에 맞추어 칼뱅의 교회일치 사상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그 사상의 특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논할 것이다.

## II. 『기독교강요』 초판의 탄생 배경

### 1. 칼뱅의 상황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누아용(Noyon)에서 태어난 칼뱅은 14살이 되던 1523년부터 파리의 여러 대학에서 라틴어, 수사학, 법학 그리고 인문학을 수학하였다. 칼뱅이 언제 개혁자로 회심을 했는지, 그 회심이 점진적이었는지 갑작스러운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

성(1543) 등. 이것들은 모두 그의 스트라스부르 체류(1536-1541) 이후에 발행된 것들이다. 위의 책, 85-106.

3) 『기독교강요』 초판의 서론에서 칼뱅의 갑작스런 회심(subita conversio)에 관해 “주석과 신학

나, 그의 회심은 대체로 1533년에 낭독된 파리 대학 신임총장의 연설문 작성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설문에서 칼뱅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구원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였기에 이제 더 이상 사제들이나 성인들의 공로가 필요 없음을 밝혔다.<sup>4)</sup> 이로 인해 칼뱅은 상당 기간 동안 샤를 데스페빌(Charles d'Espeville)이라는 가명으로 남부 프랑스 클레의 목회자이자 앙글렘 대성당의 참사회 의원이었던 루이 뒤 티예(Louis du Tillet)의 집으로 피신해야만 했다. 칼뱅은 여기서 뒤 티예의 이례적으로 넓은 개인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기독교강요』 초판의 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sup>5)</sup> 한편, 파리에서는 1534년 10월에 가톨릭 미사를 비방하는 벽보<sup>6)</sup>가 붙어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가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칼뱅은 또 다시 바젤로 피신의 길을 떠나야만 했다.

### 2. 1530년대의 바젤의 상황

25살의 청년 칼뱅이 바젤에 도착했을 때, 바젤은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종교개혁을 수용한 동맹도시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바젤에서는 츠빙글리의 절친한 동료인 외콜람파다우스(Johannes Oekolampadius)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을 계승함과 동시에 그들만의 고유한 개혁을 이끌었다. 게다가 바젤은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3개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리적 요충

적 작품들 설교나 서신 등 다작을 남겼음에도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즐겨하지 않았기에 확실한 그 증거가 없다. “De me non libenter loquor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꺼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문병호 역, 『(라틴어 직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6.

4) 위의 책, 28.

5) 박경수,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 칼뱅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들”, 『현대 기독교 이카테미』, 4.

6) 벽보사건(affaire de placards)은 1534년 10월, 마르쿠르(Antonie Marcourt)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심을 기록하여 벽에 부착한 사건을 말한다. 존 칼빈, 『(라틴어 직역) 기독교강요』, 28.

지요, 일찍이 설립된 대학과 그 곳에 상주하던 인쇄업자들로 인해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인문주의의 사상을 공유할 수 있었던 지성의 요충지였다.” 당시 바젤의 첫 번째 노회장으로 츠빙글리의 절친한 동역자였고, 외콜람파디우스와도 동역한 오스발트 미코니우스(Oswald Myconius)가 선출되었다. 1536년에는 스위스와 프랑스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세상을 떠났고, 비록 출판되지는 못하였으나 그해 2월에 제1차 스위스 신앙고백(Der Erste Helvetische Bekenntnis)이 칼뱅 생존 당시의 스위스 종교개혁의 공식적 신앙고백을 보여주었다.<sup>8)</sup> 이러한 바젤에서 칼뱅은 스위스 종교개혁가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하였고, 또한 신학연구에도 집중하였다. 가톨릭 신학자 가녹지(Ganoczy)는 바젤에서 칼뱅은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성서원문을 읽었으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였고, 그의 시대에 봉착한 종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했다<sup>9)</sup> 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칼뱅의 빼어난 글 솜씨와 비범한 능력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기독교강요』 초판을 저술하였음을<sup>10)</sup> 덧붙였다.

### 3. 『기독교강요』 초판(1536년)의 탄생

1536년 봄, 칼뱅의 첫 번째 『기독교강요』가 출판인 토마스 플라터 Thomas Platter와 발타자르 라시우스(Balthasar Ladius)에 의해 간행되었다<sup>11)</sup>. 책의 이름은 『기독교강요, 경건에 관한 전체 개요 대강과 구원의 교리를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 경건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최근

7) Peter Oplitz, *Leben und Werk Johannes Calvins*, 정미현 역, 『요한네스 칼빈의 생애와 사역』 (서울: 한울출판사, 2009), 50.

8) 위의 책, 51.

9)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ans.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94-95.

10) 칼빈은 바젤에 1535년 초에 도착하였고, 그의 원고는 이미 9월 전에 완성되었다! 다만 인쇄업자가 1536년 3월에 나타나기까지 출판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위의 책, 95.

11) 존 칼빈, 『(라틴어 직역) 기독교강요』, 30.

에 편집된 작품』으로, 이렇게 긴 제목은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작품을 쓴 유일한 목적은 종교에 대해서 여하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 경건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근본적인 사항들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일에 땀을 흘리며 애쓴 것은 제가 목도한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지닌 수많은 모국 프랑스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중에 단지 소수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조금 젖어 있을 뿐입니다. 이 책 자체가 말하는 바와 같이 저의 저술 의도는 간단한 그리고 말하자면, 소박한 가르침의 형식을 제시함에 있습니다.”<sup>12)</sup>

『기독교강요』 초판은 칼뱅이 1535년 8월 23일자로 국왕 프란시스1세에게 보낸 헌정사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탈고되었다. 칼뱅은 『기독교강요』를 쓰는 목적을 먼저, 참 경건의 교리를 배우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이는 사제들에게만 허용되어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읽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 “성경에 의해서 전승된 참 종교가” 거부되는 세대에서 국왕에게 참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밝힌다.<sup>13)</sup> 당시 프란시스 1세는 자기 영내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재세례파와 동일시하며 심하게 박해를 하였는데, 칼뱅은 이러한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포들, 곧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위해 신앙고백적인 변호를 하기 원하였다.

총 6장으로 구성된 『기독교강요』 초판은 가장 먼저 십계명 해설을 포함한 ‘율법’(제1장), 사도신경 해설을 포함한 ‘믿음’(제2장), 주기도문 해설을 포함한 ‘기도’(제3장), ‘성례’(제4장)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왜곡된 다섯 가지 성례’에 관하여 논쟁하고, 제6장은 그리스도

12) 위의 책, 1-2.

13) 위의 책, 31.

인의 자유'와 '교회의 권세'와 '시민정부'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특히 처음 네 장의 순서(율법-믿음-기도-성례들)에 있어서 루터의 〈소요리 문답, 1529〉 과 많이 닮았다.<sup>14)</sup> 그러나 칼뱅은 마지막 5,6장에서 가톨릭의 잘못된 성례들과 교회의 권세와 시민 정부를 논하는데 마지막 두 장을 할애하여 “논쟁적”이며, “변증적인” 주제들을 함께 다루었다. 가장 먼저 칼뱅은 거룩한 교리의 전체 총합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고안해 낸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한다.<sup>15)</sup>

### III. 『기독교강요』 초판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 사상

#### 1. 교회일치의 근거들

##### 1) 분파주의 비판

프란시스 1세에게 바쳐진 헌사에서 칼뱅은 가장 먼저, 자신들을 분리주의자로 비판하는 목소리에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적대자들은 칼뱅을 향해 “교회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파주의적”이고, “우리 교리가 여러 무리들의 분파들, 수많은 선동적 요소들을 양산해 왔다”<sup>16)</sup>고 비난하였는데, 칼뱅은 이에 “사탄의 사악함에 돌아가야 할 비난이 부당하게 자신의 교리에 가해지고 있고, 자신들은 가장 확실히 믿을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거칠게 반박한다.<sup>17)</sup> 이어서 칼뱅은 분쟁과 분파를 일으킨 사 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재세례파와 다른 급진주의자들이며, 그들은 사탄의 전

14) 박경수,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칼뱅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들”, 4.

15) 위의 책, 4.

16) 존 칼빈, 『(라틴어 직역) 기독교강요』, 14-15.

17) 위의 책, 38.

략으로 선동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재세례파들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다.<sup>18)</sup>

#### 2) 한 분 하나님

칼뱅에게 있어서 교회 일치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을 전제한다.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신4:6)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포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음과 세례의 관계로 설명하는데(엡4:5),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이다.”<sup>19)</sup> 그러므로 믿음이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분께 집중하며, 그 분께 부착하는 것이다. 아무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외에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 칼뱅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십계명의 제1, 2계명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설명한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분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생각하거나 품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이 계명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예배로 찬미를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서 우리가 감히... 그 분 자신을 우리의 감각적 지식에 종속시키거나 그 분을 어떤 외양으로 표상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2계명은 모든 예배와 숭배는 한 분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이어서 칼뱅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역설한다.

18) “불순한 사람들과 급진주의자들이 획책한 선동과 험잡꾼들이 획책한 분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중오를 유발시키는 사악함은 얼마나 가중한 것입니까? .. 잘못들을 용인하거나 소요를 선동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스려 대항한 사람은 그들 자신입니다.” 위의 책, 38.

19) 위의 책, 147.

20) 위의 책, 66.

곧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 아니시라고 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임을 깨닫는다. 한편 그들은 셋으로 불리고, 셋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한 분이시며 셋이시다. 그 분께서는 한 하나님, 한 본질이다. 어떻게 셋인가?...고대 정통교부들이 말했듯이, 양자는 한 본질(οὐσία)이고, 세 위격(ὑποστάσεις), 즉 한 실체, 한 실체 가운데 세 위격적 존재이다.<sup>21)</sup>

### 3) 그리스도론

칼뱅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과 본체 혹은 본질”로 정의한다.<sup>22)</sup>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을 참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여기고, 모든 신뢰를 아버지께 세우듯이 아들에게 역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sup>23)</sup> 만약 하나님의 존엄 자체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올라감이 없었으므로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셨다.(사7:14).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인성과 자신의 신성을 연합하고, 충분히 가까워졌다.<sup>24)</sup>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떤 가치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칼뱅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설명한다.<sup>25)</sup>

21) 위의 책, 150-151.

22) 위의 책, 165.

23) 위의 책, 166.

24) 위의 책, 169.

25) 위의 책, 114.

### 4) 교회론

칼뱅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sup>26)</sup>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모임은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기에 교회의 핵심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는 사도신경을 해석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즉 천사들이든, 사람들이든 선택된 자들의 전체적인 수(엡1:9-10; 골1:16)로 정의한다.

교회와 연합체는 하나이며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지도자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의 머리와 같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수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은 그 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선택되었다(엡1:4) 이 연합체는 보편적, 즉 전체적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둘 혹은 셋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27)</sup>

참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다.(롬12:5; 고전10:17; 12: 12, 27) 그의 백성들은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로서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합된다(엡1:22-23). 즉 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같은 영생의 삶속으로 부름 받아서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가 된다.<sup>28)</sup>

칼뱅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체를 이해할 수 없기에, 누가 그 분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선택된 자들인지, 누가 유기된 자들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롬11:1-36)<sup>29)</sup> 그러므로 “신앙고백과 삶의 증례와 성례들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랑의 심판에 따라서 선택된 자들과 교회의 지체들로서 여겨져야 한다. 그들이 자

26) 위의 책, 640.

27) 위의 책, 193.

28) 위의 책, 194.

29) 위의 책, 198.

신들의 악행들을 지나치게 즐기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하다.”<sup>30)</sup>

칼뱅은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를 해석하면서, “즉 공교회에서 참 믿음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한 교통과 참여가 있다. 이로써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며 다양하게 나누어졌다고 바울이 가르치듯이(고전12:4-11) 개인적인 은혜들이 다양하다는 것이 부인되지 않는다.”<sup>31)</sup> 고 하였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 됨을 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각각의 은사들을 무엇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고(롬12:4-8; 고전12:12,16), 한 몸의 지체들이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간에 모든 것을 함께 하듯이 그 공동체에 속한 각자들에게 독특한 자질들과 구별된 사역들이 있다. 그리하여 말씀된 바와 같이, 그들이 모이고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된다. 이것이 공교회,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다.(엡1:22-23)<sup>32)</sup>

칼뱅에 의하면, 교회를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으로 구별하여 교황청과 교직 계급제를 세우는 가톨릭교회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감각적인 지식들에 속하거나,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성례가 거행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칼뱅은 외형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구별해놓은 가톨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자신을 그들과 분쟁을 일삼지 않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교회의 머리이며 그 분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 모두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30) 위의 책, 204.

31) 위의 책, 210.

32) 위의 책, 211.

교회의 하나 됨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역설한다.

### 5) 출교

칼뱅은 출교를 “세상의 악과 죄행에 대한 고삐 풀린 방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짓되게 가장하면서 단지 교회의 결립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고 축출되는 것”(고전5:1-5; 마18:15-19; 딤후1:20)으로 규정한다.<sup>33)</sup> 그에 따르면, “출교는 교회를 이는 지식의 규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을 때 시행해야 하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손밖으로 버려진 듯 절망하게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불법이다.”<sup>34)</sup> 하나님은 극악한 사람들이 최선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과 교회 속으로 외인들이 심겨지는 것을 바라신다. 이와 같이 출교는 오직 이전의 삶의 오물들로부터 길로 돌아갈 때까지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sup>35)</sup>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회심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 사람들뿐 아니라 투르크인들과 사라센인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 속한 다른 적들도 또한 이와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sup>36)</sup> 칼뱅은 출교의 본래적 의미가 영원한 파멸과 절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과 품행을 전책하고, 만약 그가 뉘우치지 않으면 그에게 속할 단죄를 미리 경고하기 때문<sup>37)</sup>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33) 위의 책, 204.

34) 위의 책, 205.

35) 위의 책, 207.

36) 위의 책, 208.

37) 위의 책, 481.

## 6) 기도로 실천하는 “형제 사랑”

칼뱅은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시작함을 지적하면서, 한 아버지의 형제들로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이로부터 우리는—이와 같이 함께 한 아버지의 형제들로서—형제적 사랑의 정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중재해야 하는지를 훈계 받는다. 만약 함께 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나오는 아버지께서 한분이시라면(참고 마23:9)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나누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sup>38)</sup>

그러므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서로 손을 내밀고 도와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 그러하듯이 그분의 백성, 그분의 가족, 마지막으로 그분의 유업을 향하여서 열심과 정서를 보여야 함이 옳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인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써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나 낯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도와야 한다.<sup>39)</sup>

## 7) 교회의 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칼뱅에 있어서 참다운 교회임을 나타내주는 전혀 다른 표지는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합법적인 성례의 거행이다.<sup>40)</sup> 곧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서 거행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참고 엡2:20) 성례란 무엇인가? 칼뱅은 다음과 같

38) 위의 책, 257.

39) 위의 책, 260.

40) 위의 책, 30.

이 성례를 정의하였다.

진정 성례는 그것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표상하시고 증거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합함을 지탱하시기 위한 외부적 표징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징표로서 선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달리 정의<sup>41)</sup>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례이다.

이러한 취지로 어거스틴은 성례를 판에 그린 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표상하고 그것들을 우리들의 눈앞에 회화적이며 형상적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명한다.<sup>42)</sup> 그러나 말씀과 성례들을 확실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외에는 이 은혜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훈련하며, 굳건한 믿음을 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sup>43)</sup>

칼뱅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분별을 감지하지 못하는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과 그의 은총을 인식하도록 하셨다고 한다. 칼뱅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다. 둘째, 그분께서는 성례들로 그것을 확정하신다. 마지막으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심장의 문을 말씀과 성례들로써 여신다.<sup>44)</sup>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표지인 성례는 세례와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 칼뱅은 세례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공연히 고백하며,

41) 위의 책, 291.

42) 위의 책, 295.

43) 위의 책, 297.

44) 위의 책, 300.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는 표지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한 종교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일치한다고 증거 한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정한다.<sup>45)</sup> 또 다른 성례(sacramentum)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거룩해진 떡과 그분의 피에 의해서 거룩해진 포도즙이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성찬 혹은 성만찬(eucharist)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자체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떡여지고 우리가 그분 자신의 자애로우심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이다.”<sup>46)</sup>

칼뱅은 성례의 주요한 역할이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를 참 떡이며,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요6:56)라고 증거 하시는 저 약속을 인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것들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신 영생에 이르게 된다.”(요 6:48;50,55)<sup>47)</sup> 더불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 다른 지체인 형제가 어떤 고통이나 악에 사로잡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우리 몸의 지체들인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자주 이 성례를 사랑의 고리로 적절하게 부른다.<sup>48)</sup>

## 8) 그리스도인의 자유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연약함”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sup>49)</sup>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각자의 소견대로 자신이 마음에 소원한 바를 거침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믿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

45) 위의 책, 330.

46) 위의 책, 343.

47) 위의 책, 347.

48) 위의 책, 368.

49) 위의 책, 599.

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이루도록(롬15:1-2)” 권고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자유도 이웃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회의 하나 됨은 이렇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그들을 기쁘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전8:9)

## 2. 교회일치 사상 특징

지금까지 『기독교강요』 초판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 일치 사상을 총 8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상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진리 안에서의 일치

박경수는 『교회의 신학자 칼뱅』에서 부처와 칼뱅의 교회일치사상을 비교 연구하면서 부처와 달리 “칼뱅은 사랑 안에서의 일치보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칼뱅은 근본적인 신학적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sup>50)</sup> 그에 따르면, 칼뱅의 교회 일치를 위한 열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었고, 일치의 전제조건으로서 건전하고 충실한 교리를 강조했다.<sup>51)</sup> 칼뱅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로 삼고, 그 표지가 보이는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어떠한 분열도 용납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이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칼뱅에

50) 박경수, 『교회 개혁자 칼뱅』, 161.

51) 위의 책, 162.



있어서 일치, 하나 됨의 의미는 이런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하나 됨이 지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하나 됨이 아니다. 그가 추구한 일치는 진리 안에서 참된 교회의 일치였기에 그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 국한 될 수밖에 없었다. 칼뱅의 교회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시적인 것들로 교회를 나타내려는 로마 가톨릭은 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로마교회는 스스로 “로마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교회가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한, 말씀이 없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목회자들 간의 일치가 없다면, 교회에 진리가 머물지 않으며, 전체 회의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sup>52)</sup>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 관습 그리고 사제들의 권세 등을 더 우위에 놓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칼뱅은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에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열려진 회의 가운데 의결된 결정이 가변적이었음을 예로 들고 있다. 가령, 콘스탄티노플 회의와 니케아 회의에서 “성상”에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한 회의는 형상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도록 하고 다른 회의는 그것들을 복구하도록 결정했다.<sup>53)</sup>

## 2) 수직적 일치와 수평적 일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주창한 칼뱅은 교회의 두 번째 표지인 성례, 그 중에서도 성찬 가운데서 교회의 하나 됨을 보았다. 칼뱅은 “성찬보다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활기를 주고 우리를 불태워서 사랑과 평화와 일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분께서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는 그 분과 하나가 되도록,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동참시키시기 때문이다.”<sup>54)</sup>고 말하는데, 이는 “수평적 일치”와 “수직

52) 존 칼빈, 『(라틴어 직역) 기독교강요』, 640.

53) 위의 책, 647.

적 일치”로 구분될 수 있다.

칼뱅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분께 오직 하나의 몸이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하여 한 몸이 될 필요가 있고 한다. 이렇듯 성찬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그 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함께 참여한 자들과 하나가 되는 일치의 사건이다. 성찬은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어 땅 아래 우리와 하나가 되신 “수직적 일치”와 자신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어 그 분 자신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신 “수평적 일치”로 이루어졌다. 몸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는 형제인 우리들이 땅 아래에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도우며 하나 됨을 마땅히 유지해야 한다. 칼뱅은 성찬에서 제시되는 떡은 많은 곡식들로 만들어져 섞이고 혼합되어서 하나하나를 식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혼합되고 결합되어서 불화와 분리에 속한 어떤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sup>55)</sup>

## 3) 모순되는 교회일치

앞서 칼뱅이 헌정사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분리주의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비방하는 적대자들을 향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자이고, 이와 반대로 분쟁과 분파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재세례파와 급진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사탄의 전략으로 선동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더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재세례파와 급진주의자를 분열주의자로, 그들을 사탄의 도구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교회 일치는 무엇인

54) 위의 책, 367.

55) 위의 책, 367.

가? 과연 분열과 분쟁을 낳는 재세례파와 급진주의자와는 하나가 될 수 없는가?

또 칼뱅은 출교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을 하였다. 그는 제2장에서 사도신경 해석을 하면서, 제5장에서 열쇠의 권한과 고해성사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동시에 출교에 관해 논하였다. 칼뱅은 출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짓되게 하여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이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당시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회 밖으로 나감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였다. 과연 그리스도인을 공동체 밖으로 축출해내는 이 교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아니면 분열되게 하는가? 위 두 가지 칼뱅의 입장을 보면, 마치 그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내에 분리를 낳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칼뱅은 출교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를 아는 지식의 규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이다. 또한 출교는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옛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에게 일치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재세례파와 급진주의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칼뱅은 언제든지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1536년에 간행된 『기독교강요』 초판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 사상을 살펴보았다. 그의 교회일치를 향한 열정은 국왕에게 보내는 헌정사에서부터 마지막 6장까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칼뱅에게서 진정한 교회일치는 참 하나님의 교회임을 규정해주는 두 가지 표지가 있을 때에만 이

루어질 수 있다. 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성례가 거행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일치는 불가능하다. 교회 일치는 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 되신 것처럼 아래에 있는 형제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칼뱅의 『기독교강요』 초판은 출판되기까지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다른 개혁가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졌다. 스위스 칼뱅 신학자 피터 오피츠는 『요한네스 칼빈의 생애와 사상』<sup>56)</sup>에서 “칼뱅의 『기독교강요』 초판은 츠빙글리의 〈주석〉(Commentarius)과 유사하게 하나님 인식, 인간의 자기 인식, 기독교로 3등분 되어 전개된다.”고 주장하면서 칼뱅의 책이 츠빙글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루터, 멜랑히톤, 부처의 영향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칼뱅은 루터가 믿음을 통한 칭의와 업적을 통한 칭의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성례전과 주교를 포함한 성직자 중심적 교회를 바벨론의 포로라고 비판한 것을 『기독교강요』 초판의 핵심주제로 수용”<sup>57)</sup>하고 있다. 게다가 칼뱅은 루터의 〈소요리문답〉 순서에 따라 『기독교강요』 초판의 순서를 구성하였다. 또한 그는 칼뱅의 종교개혁의 동기가 바로 츠빙글리의 하나님 예배와 우상숭배의 근본적 구별, 참된 경전과 미신, 혹은 종교적 위선의 근본적인 구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sup>58)</sup>

여러 개혁가들의 영향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마틴 부처였다. 박경수는 『교회개혁자 칼뱅』에서 마틴 부처야말로 칼뱅에게 교회 일치 사상을 심어주고, 물을 주어 열매를 맺도록 한, 진정한 스승으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부처의 신학사상뿐만 아니라 부처의 교회일치를

56) 오피츠, 『요한네스 칼빈의 생애와 사역』, 55.

57) 위의 책, 56.

58) 위의 책, 56.

향한 열정도 받아들이는 것”<sup>59)</sup>은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었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하는 동안에 자기 삶에서 중요한 한 가지 목표인 교회일치를 발견하였으며, 교회일치에 관한 관심에 있어서 칼뱅은 참으로 부처의 제자였다.

더 나아가 가녹지는 칼뱅에 대한 부처의 영향이 『기독교강요』 초판 이전까지 소급됨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칼뱅에 대한 부처의 영향은 그가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렀던 1539년에서 154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논의된다.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부처의 영향은 칼뱅이 제네바로부터 추방을 당한 후 『기독교강요』 제2판을 쓸 당시에만 해당되고, 『기독교강요』 초판이 출판될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녹지는 『젊은 칼뱅』에서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기 전부터 부처의 책 〈복음서 해석〉(Enarrationes perpetuae in sacra quator evangelia)을 통해 그의 교회 일치 사상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비록 칼뱅이 부처와 직접적인 친분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칼뱅은 이미 1527년에 부처가 쓴 책을 통하여 부처의 사상을 접하였다. 또한 그의 책을 접한 칼뱅은 빠른 시일 내에 불어로 번역하여 제네바에서 출판하기도 하였다.<sup>60)</sup> 이 같은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부처의 흔적은 “칼뱅의 교회론”, “주의 기도”, “열쇠의 권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두 칼뱅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칼뱅은 부처로부터 교회일치사상에 관하여 큰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영향이 시작된 것은 심지어 그의 스트라스부르 체류 기간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과연 1539

59) 박경수, 『교회 개혁자 칼뱅』, 163. 여기서 그는 “일련의 에큐메니컬 회의들에 참석한 경험을 통해, 칼뱅은 교회일치의 필요성을 깊이 느꼈으며 그 후 계속해서 교회일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였다.”고 평가한다.

60)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159. 가녹지는 다음과 같이 다른 여러 칼뱅신학자들의 사상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A. Lang에 따르면, 제1판 『기독교강요』 중 몇몇 사상과 단락은 Enarrationes와 아주 많이 닮았다 R. Seeberg 역시 두 책의 몇 가지 교리적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J. Courvisier가 부처의 영향을 단지 칼빈의 스트라스부르의 체류에만 국한시켜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Enarrationes가 프랑스어권 나라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였다.

년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기 전에 칼뱅은 교회일치 사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가?”라는 의문은 해결된 셈이다.

요약하자면, 칼뱅의 교회일치 사상은 후기의 저작에서만 아니라 그의 초기 작품인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도 명확히 발견되며, 그것은 스트라스부르 체류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칼뱅은 제2세대 종교개혁가로서 앞서 개혁을 관철시킨 여러 개혁가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 아래서 그의 책을 집필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추종자가 되지 않고,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해나갔다. 심지어 칼뱅은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부처와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부처가 “형제의 사랑과 교제”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 것과 달리, 칼빈은 진리 안에서 교회 일치를 더욱 강조하였다.<sup>61)</sup> 그는 진정한 교회일치 옹호자였다.

61) 박경수, 『교회 개혁자 칼뱅』, 162.

## 참고문헌

### 1차 문헌

Calvin, Joh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문병호 역. 『(라틴어 직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 2차 문헌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박경수,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 칼뱅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들", 『현대 기독교 아카데미』

Ganoczy, Alexandre. *The Young Calvin*. Trans. David Foxgrover, Wade Provo, (Philadelphia : Westminster, 1987),

Opitz, Peter. *Leben und Werk Johannes Calvins*. 정미현 역. 『요한네스 칼빈의 생애와 사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9.